

# 羅末의 詩人들

—朴仁範, 崔匡裕, 崔承祐를 중심으로—

李 九 義

## 〈目 次〉

I. 문제 제기

IV. 경향의 계승

II. 표현과 의미

V. 마무리

III. 시의 영역

## I. 문제 제기

지금까지 전해지는 朴仁範, 崔匡裕, 崔承祐의 詩는 各各 10首씩<sup>1)</sup>이다. 본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散逸되었다.

朴仁範, 崔匡裕, 崔承祐는 崔致遠과 비슷한 시기에 生沒한 사람들<sup>2)</sup>이다. 위의 네 사람 가운데 최치원의 작품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작품 뿐만 아니라 名聲도 최치원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羅末의 詩人이라면 분명히 崔致遠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필자가 먼저 최치원의 작품을 고찰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연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학문이 발전한다.<sup>3)</sup> 사람이 어려운 데 이르게 되면 학문을 하기 마련이다. 먼 옛날 중국의 春秋戰國時代에도 그러했고 그보다 뒤 高麗時代의 武臣執權時期에도 그러했다. 個人的으로는 官職에 있을 때보다 관직에서 밀려나거나, 스스로 그만 두었을 때 학문의 성장을 가져

1) <東文選>卷十二에 七言律詩 10首씩이 전한다.

2) 崔致遠의 生(西紀 857) 沒(927年 踪跡을 감춤) 年代는 드러나지만 다른 세 사람의 生沒年代는 불확실하다. 다만 崔承祐는 眞聖女王 3年(889)에 崔匡裕는 憲康王 2年(879)에 唐에 留學하였으며, 朴仁範은 還國後 孝恭王 2年(898)에 「道說大師碑文」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惟其窮愈甚故其得愈多信所謂人窮而後工也<古文眞寶>卷六十「王平甫文集後序」

왔다. 新羅下代(惠恭王 765~新羅末)에도 마찬가지로이다. 政治적으로는 王權다툼이 있었다. 또 官吏들은 官等에 따라 서로간에 알력이 있었다. 그리고 출신 等級에 따라서도 분규가 있었다.

위의 세 시인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모두 六頭品 출신이라는 점. ㉡ 모두 唐나라에 유학했다는 점. ㉢ 唐나라에 유학하여 賓貢科에 及第하였다<sup>4)</sup>는 점. ㉣ 唐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祖國新羅로 돌아 왔다는 점. ㉤ 當時의 文壇을 代表할 수 있다는 점. ㉥ 그들의 詩가 <東文選>에 각각 10首씩 실려 있다는 점. ㉦ 모두 新羅末期에 生沒했다는 점. 이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고 하여 꼭 연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할 가치가 없으면 간과해도 된다. 그러나 위의 세 사람은 최치원과 더불어 新羅下代の 文壇을 대표한다. 또 신라가 기울고 고려가 興起하는 過渡期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위의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본 논문을 전개하기로 한다.

## II. 표현과 의미

우리 先祖들은 詩語(Poetic Diction)와 意味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왔다. 詩人들이 사용되는 詩語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時間, 空間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時代가 바뀔에 따라 작품을 해석한 방법도 다를 수 있다. 시인이 의도하는 詩語의 의미와 독자의 해석 사이에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I. A. Richards는 언어를 네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다. 그는 하나의 낱말이 그 쓰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작용한다고 했다. 여기서 네 가지 의미란 바로<sup>5)</sup> ① Sense, ② Feeling, ③ Tone, ④ Intention이다. ① Sense가 지닌 의미도 복잡한 데 낱말 속에 Feeling, Tone, Intention이 함께 작용하면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4) 崔承祐는 侍郎 楊涉下에서 及第했으며 朴仁範 崔匡裕는 進士及第했다. 池浚模 「新羅漢文學史」(新羅伽倻文化, 第四輯) (嶺南大學校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72, p. 138.

5) I. A. Richards, Practical Criticism, (London:Routledge & Kegan paul Ltd.), 1973. Reprint, pp. 179~188.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가 생존했던 시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詩語와 意味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 묘사의 섬세성

먼저 최광유의 「長安春日有感」이라는 시를 살펴 보기로 한다.

麻衣難拂路歧塵	鬢改顏衰晚鏡新
上國好花愁裏斃	故國芳樹夢中春
扁舟煙月思浮海	羸馬關河倦問津
祗爲未酬螢雪志	綠楊鶯語大傷神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詩의 시간적인 배경은 봄이다. 또한 공간적인 배경은 中國의 長安이다. 다시 말하면 異國이다. 首聯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중화자가 아직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麻衣라는 詩語가 이를 말해 준다. 벼슬을 못했으니 작중화자의 심정은 초조하다. 기기에다 나이는 자꾸만 들어간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니 수염은 희어지고 있다. 참신한 아침이지만 작중화자의 심정은 그렇지 못하다. 上國, 즉 중국의 꽃들은 아름답다. 그러나 작중화자는 시름겹다. 자연은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가 온다. 그러나 작중화자의 심정은 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 春來不似春이다. 벼슬을 하지 못했으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자나 깨나 꿈 속에도 가고 싶은 곳은 고향이다. 봄이 되었으니 고향에도 꽃다운 나무들에 새 잎이 날 것이다. 봄날 마스한 별이 사망에 가득하니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다. 편주에 세월 실어 바다에 떠돌 것일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 이르는 것은 고사하고 나무 묻기도 지쳤다<sup>6)</sup>. 또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갈 수가 없다. 작중 화자의 마음 속의 馬는 지쳤다. 여기서 ‘問津’은<sup>7)</sup>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의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무터울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숨은 의미는 그것 보다는 출세하는 길이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방인으로서 이국에서 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도 차별대우를 하는 가운데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과거시험을 치면 될 확률보다

6) 趙東一, 한국문학통사(1), (서울: 지식산업사), 1982, pp. 252~253.

7) <論語>卷十八 「微子」章에 “長沮樂溍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曰是知津矣” 라는 말이 나온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그러니 처음 入唐할 때 세운 뜻을 이루기는 더 힘이 든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 봄이 와서 버들가지가 푸르고, 피꼬리가 지저기어도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윗 시의 首聯은 ‘登臨暫隔路歧塵’이라는 최치원의 「登潤州慈和寺上房」 시와 비슷하며, 頸聯은 역시 최치원의 「陳情上太尉」에 나오는 ‘問津何處是通津’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한다. 어린 나이에 이국에 가서 느끼는 작중화자의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庭梅」

練艷霜輝照四隣	庭隅獨占臘天春
繁枝半落殘粧淺	晴雪初鎖宿淚新
寒影低遮金井日	冷香輕鎖玉窓塵
故園還有臨溪樹	應待西行萬里人

위 시의 제목부터 보기로 한다. 제목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뜰에 핀 매화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화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sup>8)</sup> 매화는 가장 일찍 피는 꽃 가운데 하나이다. 겨울이 완전히 다 가기 전에 꽃이 핀다. 국화가 겨울 추위에 못이겨 조락하는 것과는 달리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이긴다. 눈이 녹기도 전에 강한 생명력을 발동시킨다. 비단처럼 곱고 서리처럼 빛나는 것이 매화의 모습이다. 뜰 한 모퉁이에서 소멸되지 않고 곳곳이 피어 있다. 매화가 서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뜰 한복판이 아니라 모퉁이다. 이는 작중화자가 처한 상태를 말해 준다. 작중화자는 故國의 中心部가 아닌 異國에 있다. 異國에서도 한 모퉁이로 밀려나 있다. 보아 주는 사람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한 겨울의 모진 바람에도, 차가운 눈 속에서도 곳곳이 버티어 피어났다. 이는 梅花와 작중화자의 一致이다. 매화와 마찬가지로 작중화자는 生의 勝利者이다. 강인한 의지력의 소유자이다. 차가운 날씨에 약하게 풍겨 나오는 향기는 玉窓의 먼지를 녹였다고 했다. 먼지는 향기와는 서로 對照의이다. 향기가 나쁜 먼지를 녹여 버렸다. 이는 善惡이 서로 교차하지만 善이 惡을 소멸시킨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매화 향기를 맡으며 작중화자는 끝없는 상념의 세계로 빠진다. 즉 멀리 고향 마을 시냇가에 서있는 매화나무를 연상한다. 매화는 반드시 작중화자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 했다. 그것도 멀리 서쪽 나라로 떠

8) 尹榮玉, “梅花와 菊花의 時調”(慕山 沈載完博士華甲記念 時調論叢) (서울: 一潮閣) 1978, pp. 91~105.

난 작중화자이다. 한 그루의 화려하지도 않은 매화를 보면서 작중화자는 먼 고향을 생각한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이 더 그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그만큼 더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겨울 날씨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는 梅花에서 작중화자의 生에 대한 애착을 맛볼 수 있다.

「送鄉人及第還國」

仙柱濃香惹雪麻	一條歸路指天涯
高堂朝夕貧調膳	上國歡遊罷醉花
紅暎蜃樓疲吐日	紫籠籠極岫橫霞
同離故國君先去	獨把空書寄遠家

앞의 「庭梅」에서 작중화자는 매화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즉 鄉愁에 젖어 있다. 위의 시에서도 자신의 심정을 잘 토로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친구가 급제를 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이다.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작중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급제한 것을 折桂花라 한다. 친구는 계수나무를 꺾었다. 그러나 작중화자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留學한다고 누구나 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아니다.<sup>9)</sup> 그러나 당시 유학한 사람 가운데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버이에게 조석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친구에 비해서 뒤져 있는 자신의 心境은 초조하기만 한다. 心境이 초조할 뿐만이 아니고, 異國人으로서 어떤 障壁을 느낀다. 중국을 上國이라 했다. 이는 당시로 봐서는 당연하다. 신라의 임금도 ‘臣某某’라고 했으니까. 頸聯에서 보면, 색깔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 出句가 희망을 나타낸다면, 對句는 절망적이다. 출구가 기쁨을 나타낸다면 대구는 서글픔을 나타낸다.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은 붉은 색깔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다. 출구가 고향 친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면, 결국은 작중화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間에게는 歸巢本能이 있다. 이는 人間外의 다른 動物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작중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蜃雪의 功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것은 自意도 되고 他意도

9) 尹榮玉, 앞의 책 p. 321.

된다. 얼핏 보면 自意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한 껍질을 벗기면 自意가 아니라 他意가 된다. 이러한 歸巢本能은 현대시에도 찾아볼 수 있다. 李鄉莪詩人の「歸巢」<sup>10)</sup>라는 詩가 있는데 몇 구절을 들어 보기로 한다.

……아침이면 껍질을 벗듯 집을 버리지만, 보다 확실한 집으로/가기위함이다.  
/ 새들은 더 깊은 깃털 속에 묻히기 위해/꽃들은 씨앗으로 돌아가려고/야단들이다./ 밤낮 없이 아우성이다./…… 下略……

보다 확실한 집으로 가기 위해 아침에 집을 떠났다고 했다. 이는 마치 최광유가 보다 확실한 자리를 잡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과 상통한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일터로 향하는 것이나, 어린 나이로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 背景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런데 밤이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밤이 되면 새도 사람도 모두 보금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앞의 친구를 전송하는 시에서의 작중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더욱 더 고향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방인의 서글픔인 것이다. 비단, 겉으로 드러난 이방인으로서의 鄉愁만은 아니다. 항상 當時 詩人들의 詩 속에는 內面的(精神的)으로 安息處를 찾고 있었다. 當時 지식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중국도 신라도 될 수 없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식인들은 정신적인 고향이 없었다. 언제나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 無常의 詩

회고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無常感이다. 회고시가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회고시의 출현은 태평성대에는 드물다. 현시점에 만족을 느낀다면 회고시가 나올 수 없다. 회고시의 출현은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 亡國의 신하들은 많은 회고시를 남겼다. 고려가 망하고 난 뒤에도 그랬고, 조선이 일제에 강제 점령당했을 때도 그러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魏晉의 交代期에 82首<sup>11)</sup>의 詠懷詩를 남긴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제 朴仁範의 「九宮宮懷古」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0) 《詩文學》四月號(通卷 93號)(서울: 詩文學社), 1979, p. 83.

11) 魏晉交代期에 阮籍(AD 210~263)이라는 사람은 82首의 詠懷詩를 남겼다. 그 가운데 1首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夜中不能寐, 起坐彈鳴琴, 薄帷鑑明月, 清風吹我襟, 孤鴻號外野, 翔鳥鳴北林.” <中國古典詩聚花>, (4) 「思索と詠懷」, pp. 47~50.

憶昔文皇定鼎年	四方無事幸林泉
歌鐘響徹煙霄外	羽衛光分草樹前
玉樹金階青靄合	翠樓丹檻白雲連
追思冠劍橋山月	千古行人盡慘然

구성궁은 수나라 때 仁壽宮을 唐太宗이 改稱한 것이다. 옛날 文皇이 天下를 통일한 때를 생각해 본다. 天下를 통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넓은 中原을 통일했으니 온 누리에 힘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태평성대에는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흥에 맞춰 자연히 정경을 음미할 수도 있다. 煙霄라 했으니 계절은 봄이다. 아지랑이가 아롱거리는 봄에 賞春을 한다. 천하를 통일했으니 軍士力도 대단할 것이다. 천자를 모시는 군사들이 賞春을 하는 곳에서 천자를 호위한다. 뿐만 아니라 누각이나 섬돌은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玉樹金階라 했으니 평범한 누각이나 섬돌이 아니다. 호사스러운 장식을 한 누각이고 섬돌이다. 그러한 호사스러움에 안개가 한층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푸른 다락과 붉은 난간도 마찬가지로 호사스럽다. 또 흰구름이 얽게 피었다. 구름은 검은 소나기 구름이 아니다. 흰구름에서 우리는 더 한층 은근함을 느낄 수 있다. 푸름과 붉음, 그리고 흰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고 있다. 그런데 橋山에서는 어떠한가? 천하를 통일할 당시의 위용도, 호사스러운 누각이나 궁궐도 모두 헛된 것이 되어 버렸다. 橋山<sup>12)</sup>에 冠과 칼을 버린 것을 생각하니 人生의 덧없음이 애처롭다. 지나는 사람마다 옛날의 호사스럽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니 눈물이 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티끌이 되어 버렸다. 역사가 순환함에 따라 人世의 興亡盛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다지 욕심이 날 수 없다. 이어서 朴仁範의 「馬嵬懷古」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日旆雲旗向錦城	侍臣相顧略傷情
龍顏結恨頻回首	玉貌催魂已隔生
自此暮山多慘色	到今流水有愁聲
空餘露濕闌花在	猶似仙娥臉淚盈

12) 橋山은 현재 陝西省 中部縣의 西北에 있는데 일명 子午山이라고도 한다. 산 위에는 黃帝의 무덤이 있다. <史記> 「五帝紀」

馬嵬는 당현종이 양귀비를 賜死한 곳이다. 임금님의 깃발이 금성으로 향한다 했다. 이는 唐玄宗이 安祿山の 반란으로 蜀나라로 피난 간 것을 말한다. 안록산의 난으로 피난을 갈 때 임금을 모시던 신하들은 마음이 상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속으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다. 侍臣들은 거기서 楊貴妃를 賜死하기를 간청했다. 侍臣들의 간청에 못이겨 玄宗은 賜死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玄宗은 총애하던 양귀비를 죽인 것에 한이 맺힌다. 한이 맺혀 자꾸 머리를 돌린다. 그러나 양귀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아름답던 용모도 간 데 없이 사라졌다. 미모로써 귀인의 총애를 받은 것도 돌이켜 보면 일시적인 것이다. 양귀비가 죽은 뒤로 馬嵬는 그러한 애닦은 사연을 간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안타까우니 어둠에 덮힌 산은 더욱 처참해 보인다. 물론 저물다는 말에서 절망, 쇠락 등의 정감을 맛볼수 있다. 양귀비와 같은 미인이 죽어도, 물은 계속 흐른다. 人間의 生命은 有限하다. 그러나 自然의 生命은 無限한 것이다. 다만 옛날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흐르는 물을 볼 때는 시름겹다. 길가에서 아침 이슬에 젖은 한 떨기 꽃이나 다름없다. 꽃은 피었다가 쉬이 진다. 이슬에 젖은 꽃은 마치 눈물에 젖은 양귀비와 같다. 이슬과 눈물, 꽃과 양귀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자연의 이슬과 인간의 눈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꽃과 인간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로 高麗時代의 詩人인 印彬의 「東都懷古」<sup>13)</sup>를 살펴보기로 한다.

昔年鷄貴國	王氣歇山河
代々人安在	江流水自波
舊墟空草木	遺俗尙絃歌
崔薛無因見	嗟嗟可奈何

위의 시는 신라의 멸망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옛날 신라 천년을 생각한다. 그런데 왕기는 산하에 남아있지 않다. 시대가 지나가 버렸으니 사람은 간 데 없다. 세월따라 人傑도 사라져 버렸다. 강물은 저절로 물결치며 흐른다. 여기서도 人間의 有限性和 自然의 無限性を 강조하고 있다. 옛날 궁전터는 텅 비고 초목만 가득하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거문고 켜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태평성대에는 당연히 해야 할

13) 〈東文選〉卷九



것이지만, 세월이 흘러간 뒤에 듣는 거물고 소리는 그리 즐겁지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이나 설총과 같은 뛰어난 학자도 만날 수 없다. 신라의 멸망과 더불어 모두 옛날 이야기거리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처럼 회고시는 시대의 앞, 뒤를 막론하고 그 주제는 거의 동일하다. 과거의 태평성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세계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회고시의 출현은 그만큼 作詩를 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朴仁範도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충족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Ⅲ. 시의 영역

본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시인의 작품을 통하여 시의 영역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조동일 교수는 최치원의 사상을 논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치원의 문학은 과거를 통해서 입신하는 데 필요한 문학이었다.…中略… 개인이 글을 쓰는 것은 관직에 종사하면서 글을 보다 잘 쓰기 위한 문장 수련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sup>14)</sup>

當時에는 문학을 다른 예술과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분이 없다고 하여 文學觀이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 작품이나 또 다른 문헌을 통해서 문학관을 찾아 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문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崔致遠의 文集 외에 위의 세 사람의 문집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 · 情感的 自然表現

삼국시대까지는 서정시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다. 멀리 古朝鮮 때에는 「筌篲引」이라는 서정시가 있고, 고구려 시대에도 유리왕의 「黃鳥歌」가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신라의 六頭品 출신의 학자들이 渡唐留學을 하면서부터 近體詩가 韓半島에 紹介되었다. 중국에서도 近體詩가 成立된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

14) 趙東·,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 知識產業社), 1978, pp. 48~49.

다. 主氣詩가 주로 삼국시대의 경향<sup>15)</sup>이었다고 한다면, 三國을 지나 신라 중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서정시이다. 이 시기의 서정시가 갖는 情의 특징은 종교에 대립되는 인간의 정이다. 이것은 인간성을 탈피하려는 사상이나 관념으로부터 다시 人間本然으로 돌아 오를 뜻한다. 조선조에 성리학이 성행<sup>16)</sup>하면서 인간의 정서를 철학화하는 경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신라하대의 세 시인들의 詩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崔匡裕의 「御溝」라는 시를 살펴 보기로 한다.

長鋪白練靜無風	澄景滿潭皎鏡同
堤柳雨餘光映綠	牆花春半影含紅
曉和殘月流城外	夜帶殘鐘出禁中
人若有心上星漢	乘槎未必此難通

首聯은 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어구의 물이다. 바람이 불어 출렁거리는 물이 아닌 잔잔한 물이다. 마치 흰비단을 펼친 듯 깨끗하다. 깨끗한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거울처럼 투명하다. 잔잔히 고여 있는 물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은 흰비단과 거울이다. 頤聯에서는 봄날의 정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봄비가 그치니 버들잎이 파랑계 생기를 찾는다. 그리고 담장가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있다. 자연정경에 대한 작중화자의 솔직한 표현은 봄날의 화창한 기운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작중화자는 어떠한가? 새벽에 출근을 한다. 달을 보며 출근을 했다가 한 밤중이 되어서야 퇴근한다. 여기서 작중화자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禁中, 즉 갖힌 몸인 것이다. 공직도 한가하지 않다.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을 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즉, 頸聯은 작중화자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聯에서는 用事를 하고 있다. 즉, 漢한나라의 長騫이 때를 타고 銀河에 갔었다는 전설이다.

首聯에서는 정체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잔잔히 고여 있는 물을 흰비단에, 그리고 맑은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또 頸聯에서는 얼핏 보기에는 역시 정체된 자연을 묘사한 것 같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자연이 아니다. 봄날의 따스한 기운을 받아서 버들잎이 나고, 꽃이 핀다. 즉 우주의 기운이 식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작중화자 자신의

15) 沈浩澤, “三國時代와 新羅中代의 漢詩에 대하여”(漢文學論集, 第二輯)(檀國大學校 漢文學會) 1984, 11, p. 12.

16) 沈浩澤, 위의 논문, p. 13.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공직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심정을 읊고 있다. 앞 두 연의 자유로운과는 대조적이다. 마지막 연은 희망을 표현한 것이지만 현실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로 보서는 은하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지 희망에 그치고 있다.

崔承祐의 「鏡湖」라는 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採巖山前越國中	麴塵秋水澹連空
蘆花散撲沙頭雪	菱窠吹生渡口風
方朔絳囊遊渺渺	鷓夷桂楫忿忿
明皇乞與知章後	萬頃恩波竟不窮

이 시는 앞의 崔匡裕의 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崔匡裕의 시는 봄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崔承祐의 시는 계절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다. 봄과 가을의 계절에서도 상당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채길산 앞에 있는 나라가 월(越)나라이다. 월나라 안에 鏡湖가 있다. 물론 경호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서술어와 목적어가 없다. 월나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없다. 하지만 제목과 연관시켜 보면 알 수가 있다. 거울같이 맑다 하여 이름을 鏡湖라 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계절은 가을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아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호수 안에 있는 물도 나찬가지이다. 따라서 맑으면서 잔잔한 물은 거울처럼 잘 비친다. 하늘이 물에 비치고 있다. 그러니 하늘과 물이 겹치는 것 같다. 首聯에서는 정체된 호수, 물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런데 頤聯에서는 어떠한가? 갈꽃이 흩날리고 있다. 그러니 마치 눈이 오는 것과 같다. 갈꽃의 보조관념은 눈이다. 갈꽃은 땅 위에 있다. 그리고 눈은 하늘에서 내려 온다. 즉, 앞의 수연에서처럼 하늘과 땅이 一致하고 있다. 또 마른잎이 흔들린다. 그런데 삼천갑자 東方朔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鷓夷子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 치어자는 范蠡이다. 월나라의 번려가 배를 타고 五湖로 갔다. 그 뒤 賀知章이 唐玄宗으로부터 鏡湖를 詔賜받았다. 임금의 은혜가 마르지 않듯, 호수의 물도 마르지 않는다.

이처럼 羅末의 詩人들은 자연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情感的이다. 이는

비단 羅末의 시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唐君毅<sup>18)</sup>교수는 魏晉 때의 시인들이 자연을 중히 여겼다고 한다. 羅末의 詩人들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버려 두지 않았다.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는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간다. 즉 言外之意가 있는 것이다.

조운제 교수는 자연미의 발견은 조선시대 이후라고 했다. 그러나 자연미의 발견은 조선시대보다 앞선다. 자연미의 발견은 신라시대까지 소급된다. 신라말의 시인들에서도 상당히 자연미에 대한 눈이 열렸다. 이러한 자연미의 발견은 중국에서는 魏晉<sup>19)</sup>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떻든 신라 중기에 이어 말기에서도 서정적인 시가 포출되었다.

다음은 시에 나타난 정신에 대해서 규명해 보기로 한다.

#### · 人文精神과 超人文精神

唐君毅 교수는 人文精神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人文, 非人文, 次人文, 超人文, 反人文이 그것이다.<sup>20)</sup>

이들 세 시인들의 정신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실제로 시를 분석해서 시 속에 있는 精神의 영역을 규명하기로 한다. 먼저 「涇州龍朔寺閣兼柬雲栖上人」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翬飛仙閣在青冥	月殿笙歌歷歷聽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到岩巒
人隨流水何時盡	竹帶寒山萬古青
試問是非空色理	百年愁醉坐來醒

이 시는 崔致遠의 「登潤州慈和寺上房」, 朴寅亮의 「泗州龜山寺」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人口에 膾炙된 작품이다.<sup>21)</sup>

18) 唐君毅, 中國人文精神之發展(台灣:學生書局) 1984, 7, pp. 30~31.

19) 1) James Wripple Miller, "English Romanticism and Chinese Nature poetry" (Comparative Literature) vol. 24. 1972, pp. 216~236.

2) J. D. Frodsham, "Landscape poetry in Chinese and Europe"(Comparative Literature) vol. 19. 1967, pp. 193~216.

小尾郊一, 中國文學に見わたる自然と自然觀, (東京:岩波書店) 昭和44年 pp. 47~258.

20) 唐君毅, 앞의 책, pp. 17~44.

21) 題潤州慈和寺一句云…學士朴仁範題涇州龍朔寺詩云…參政朴寅亮泗州龜山寺詩云…我東之以詩鳴于中國自三子始文章之華國有如是夫. 李奎報, 「白雲小說」〈詩

푸른 하늘에 솟은 것이 선각이다. 푸름과 仙閣에서, 그리고 月宮에서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높이 창공을 향하여 우뚝 선 절이다. 밤, 그것도 가을 밤에 흔들리는 등불이 마치 반딧불같다. 반딧불처럼 매달려서 험한 산길을 비춰 주고 있다. 산길에 이어져 있는 구름다리가 절문까지 이어져 있다. 험한 산길에서 우리는 험난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험난한 인생도 흐르다 보면 그칠 날이 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이다. 그런데 다리 밑의 불은 쉽없이 흐른다. 人生의 有限性을 느낀다. 그런데 자연은 어떠한가? 대나무는 차가운 산에서도 항상 푸르다. 대나무는 굳음을 상징한다. 人生에 비해서 自然은 변함이 없다. 즉, 작중화자는 人間生命의 有限性과 自然生命의 無限性을 느끼고 있다.

尾聯의 出句 “試問是非空色理”는 바로 「般若波羅蜜多經」에 나타나는 ‘空’ 사상에 根據한다. 般若는 최고의 智慧에서 槃에 이르는 智慧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智慧는 존재하는 개개 자체의 본질을 想定한다. 그리고 實體視한 고정적 인식을 부정한다. 그리고 일체를 관계성에서 相對的으로 把握하는 인식, 바로 ‘空’의 인식이다. 즉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想行識亦復如是”이다. 앞 구절은 「般若心經」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은 진리를 一心으로 感得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통하여 그 妙諦의 境地에 도달케 하는 因緣의 원리, 緣起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제까지 尾聯에서 옳고 그름과 空과 色의 이치를 붙여 보았다. 그랬더니 “色은 空과 다르지 않고 空은 色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色이 곧 空이요, 空이 곧 色이다. 그러니 受, 想, 行, 識이 모두 空하다. 앞의 色과 뒤의 受, 想, 行, 識을 합해서 우리는 五蘊이라 한다. 五蘊이라는 것은 人間의 여러 가지 條件을 말한다. 즉 肉體, 感覺, 意의 作用, 有爲(僞), 그리고 認識作用을 모두 말한다.

出句의 물음에 이어 작중화자는 자아에게서 대답을 들었다. 즉 慧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 그랬더니 오래도록 쌓였던 모든 근심이 한꺼번에 모

話叢林》(서울 亞細亞文化社)(影印本) p. 14.

위와 비슷한 내용이 徐居正의 〈東人詩話〉卷上에도 실려있다.

즉, “崔文昌侯致遠入唐登以文章著名題潤州慈和寺詩……後雜林賈客入唐購詩·以此句書詩者學士人範題泗州龜山寺詩……方輿勝覽皆載之吾東人之以詩鳴於中國自三君子始文章之足以華國如此” 徐居正, 徐四佳全集 (서울: 旴晨社), 1980. 5, p. 649.

두 없어졌다. 이는 바로 「般若心經」을 바탕으로 한 '마음'(大乘)<sup>22)</sup>의 悟得이다. 즉, 마음의 悟得에서 朴仁範의 詩가 表出되고 있다. 이어서 崔承祐의 「讀姚卿雲傳」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會向紗窓揭繚囊	洛中遺事最堪傷
愁心已逐朝雲散	怨淚空隨逝水長
不學投身生谷襍	却應偷眼宋家墻
尋思都尉機才子	大抵功曹分外忙

「姚卿雲傳」은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시를 분석해 보면 그 대강은 짐작이 간다. 먼저 首聯에서 보면 요경운전이 있었다. 내용은 洛陽의 옛일을 서술했다.

시름은 아침 구름 쫓아 흩어졌다했다. 여기서 아침 구름은 故事를 품고 있다. 바로 楚王이 高唐에 놀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여자가 와서 말하기를 “나는 무산의 여인인데 고당에 왔다가 왕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왕이 동침하였더니 여인이 가면서 “나는 무산에서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 저녁마다 양태(陽台) 밑에 있습니다” 하였다.

이처럼 인간과 초월자의 만남이다. 왕이 만난 여인은 여자이지만 보통 여자가 아니다.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도 될 수 있는 여인이다.

할연 대구에서는 원망의 눈물이 그지 없다고 했다. 작중화자는 무엇을 원망하는 걸까? 위 시에서는 분명히 찾을 수 없다. 어쨌든 분위기는 밝지 못하다. 또한 金곡(金谷)에서 몸 던진 것을 안 배운다고 했다. 여기서 金곡은 어떠한 의미일까? 金곡<sup>23)</sup>은 晋代 石崇이라는 사람의 별장이 있는 곳이다. 石崇의 愛妓가 金谷의 淸涼臺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고사이다.

또 '담을 엿봄을 응했다'라는 말에 고사가 있다. 즉 宋玉의 「好色賦」의 引절에 “세상의 미인은 초나라 만한 데가 없고, 초나라에 미인은 많지만

22) 元曉大師은 大乘의 세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所信義者則有三種云何爲。一者體大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不減故。二者相大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三者用大謂能生一切世間善因果故。一切佛本所乘故。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地故。李箕永, 元曉思想(世界觀)(弘法院), 1971, p. 128.

23) “昔者先王嘗遊高唐怠而晝寢夢見一婦人曰妾巫山之女也爲高唐之客聞君遊高唐願朝枕席王因幸之去而辭曰妾在巫山之陽高丘之阻旦爲朝雲暮爲行雨朝朝暮暮陽臺之下”(《文選》卷第十九 宋玉「高唐賦」)

崔承祐은 「題桃花夫人廟」라는 詩에서 “細腰宮裏露桃新, 脈脈無言度幾春, 畢竟如何擣底事, 可憐金谷墮樓人”이라 읊고 있다.

臣의 마을만한 데가 없나이다. 臣의 마을에 미인이 많으나 臣의 집 동녘 집 처녀가 으뜸이운데, 그녀가 臣의 담을 엮본 지가 3년으로서 臣이 한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나이다.”<sup>24)</sup> 하였다. 위의 「好色賦」의 중심 내용은 奏나라 章華大夫의 말을 빌면 “사악한 신하에게 덕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신하 뿐만이 아닐 것이다. 君主도 마찬가지로 修德을 해야 된다. 하찮은 美人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羅末에는 超人文精神을 지니는 시가 많다. 이는 그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 그리고 시인들의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재론된다.

羅末詩人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氣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 氣不甚高

이규보는 그의 〈白雲小說〉에서 최치원의 시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시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어찌 그가 중국에 들어간 것이 晚唐되이기 때문이겠는가?”<sup>25)</sup>했다. 이규보는 최치원의 氣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고 했다. 즉, 그는 氣가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崔匡裕, 朴仁範, 崔承祐의 시는 어떠한가? 몇 수의 시를 직접 분석해 봄으로써 그 면모를 규명하기로 한다. 먼저 최광유의 「早行」이라는 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綠閑鷄唱獨開局	羸馬悲嘶萬里亭
高角遠聲吹片月	一鞭寒彩動殘星
風牽疏響過山雁	露濕微光隔水螢
誰念異鄉遊子苦	香燈幾處照銀屏

닭 우는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 새벽이다. 이른 새벽에 혼자서 문을 나

24) “王曰天下之佳人莫若楚國楚國之麗者莫若臣里臣里之美者莫若臣東家之子……然此女登牆闌三年至今未許也” 〈文選〉卷十九, 宋玉 「好色賦」

25) · “其詩不甚高豈其入中國在於晚唐後故歟” 李奎報 〈白雲小說〉

· 金周漢 “其詩不甚高小攷”, (韓國詩歌研究) (대구: 螢雪出版社) 1981. pp. 159~184.

· 李俊求, “崔致遠 漢詩의 氣考”, (詩와 詩論) (서울: 探究堂) 1985. 7. pp. 408~434에서 崔致遠 詩의 氣를 ① 志氣 ② 浩氣 ③ 洞氣 ④ 禪氣로 구분했다.

· 沈浩澤, “漢文學論에서의 氣의 개념” (韓國學論集, 第六輯),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1. pp. 59~90.

온다. 새벽의 참신함과 나그네의 외로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새벽이라는 것은 변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 거기다가 말도 여윌었다. 여윈 말이 슬피 울고 있다. 여윈 말에서 작중화자의 처지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이 느긋하지 못한 상태이다.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이다. 그것도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중화자가 갈 길은 아득하다. 만리 역정이라 했으니까. 달은 조각달이다. 여기서도 모자라는 감이 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각(角) 소리가 들린다. 여윈 말이 우는 것과 혼자인 작중화자, 그리고 조각달, 각(角) 소리 등에서는 넉넉하고, 편안하고, 따스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여윈 말에 채찍을 가해 길을 떠난다. 여기서 나그네의 처량함이 더 깊어진다. 또 기러기 소리가 들린다. 희미한 반딧불이 깜박인다. 首聯에서 頸聯까지는 작중화자가 처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부족하고, 힘이 없고, 싸늘하고, 처량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尾聯에서처럼 더 절실하게 나그네의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 타향에서 생활하는 작중화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새벽이나 반딧불과 같은 시어에서는 조금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를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詩語에서 뿐만 아니라 意味에 있어서도 밝고 활기 찬 것은 없다.

이어서 박인범의 詩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上馮員外

陸家詞賦掩群英	却喚虛傳榜上名
志操應將寒竹茂	心源不讓玉壺清
遠隨旌旆來防虜	未逐鸞鵠去住城
蓮幕鄧林容待物	翩翩窮鳥自哀鳴

陸家の 詞賦가 으뜸이라 했다. 그런데 헛되이 전하는 榜에 붙은 이름이 우습다고 했다. 왜냐하면 모두 陸機 형제의 아류이니까. 여기서 육기의 형제와 같은 재주는 바로 馮員外이다. 풍원외의 지조가 대나무처럼 곧다. 마음씨는 육명의 맑은 얼음이라 했다. 작중화자가 풍원외를 칭찬한 말이다. 그런데 작중화자는 어떠한가? 軍馬따라 되놈(虜)를 막으러 왔다고 했다. 즉 兵役에 나가 있는 몸이다. 그것도 아직 출세를 하지 못했다. 즉, 鸞새처럼 貴人을 만나 서울에도 가지 못한 신세다. 그러나 幕府에 등용되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鄧林은 또 무엇인가? “과보가 막대를 버린 것이 등림이 되었다.”<sup>26)</sup>라는 말이 있다. 즉, 등림은 벼슬에 등용되는 것을 말한다. 지팡



이를 꽃은 것이 큰 나무가 되듯 작중화자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아직까지 작중화자는 좋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 궁한 새가 포뿔 포뿔 날며 슬피 우는 것과 같다. 여기서 궁한 새의 원관념은 바로 작중화자 자신이다.

앞의 II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박인범의 시는 묘사가 뛰어났다. 이것은 그의 作詩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 가운데서 박인범이 가장 詩名을 얻었다.

羅末 詩人들은 自然美를 발견했다. 이 自然美의 發見은 中國에서는 魏晉時代로 소급한다. 趙潤濟教授가 朝鮮時代에야 自然美를 발견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羅末의 詩人들은 自然을 人間과 분리시키지 않았다. 自然과 人間이 交感하고 있다. 그러나 自然과 人間이 동등하다고 보지 않았다. 超越者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여기서 超人文精神이 나타난다. 朴仁範의 「涇州龍朔寺閣兼柬雲栖上人」과 其他의 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羅末의 詩人들의 경향은 어떠했는가?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IV. 경향의 계승

먼저 當時의 詩風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인범, 최광유, 최승우는 중국에 유학한 사람들이다. 또한 그곳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詩風을 알기 위해서는 中國의 歷代詩風의 특성을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 漢文學은 中國의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위의 세 사람이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晚唐期였다. 그러면 이들이 晚唐詩風을 따랐을 것이다. 晚唐詩風은 어떠했는가? 이에 앞서 唐詩風의 一般的인 특성을 알아 보기로 한다.

唐詩風은 唐代의 詩風을 말하는 것이다. 唐詩風의 특색은<sup>27)</sup> ㉠ 作法上: 定한 格式에 맞도록 여러 가지의 法式을 要求했다. ㉡ 詩人의 個性이 나타내어짐을 요구했다. 唐나라는 네 시기로 구분한다. 즉, 初唐(618~712), 盛唐(713~765), 中唐(766~826), 晚唐(827~末)이 그것이다. 이 네 시기의

26) “夸父與日逐走入日渴欲得餘飲於河渭不足北餘大澤未至道渴而死棄其杖化爲鄧林”(山海經·海外北經) 諸稿輟次若〈大漢和辭典〉

27) 文璇奎, 韓國漢文學, (서울: 二友出版社), 1980, pp. 162~164.

詩風의 특색을 들면, ㉠ 初唐詩風은 六朝詩風을 계승하였다. ㉡ 盛唐詩風은 古詩風으로 復古되었다. ㉢ 中唐詩風은 盛唐詩風을 계승해서, 古詩風을 따랐으나, 詩가 潑刺하지 못하고, 悲哀의이고 沈鬱的이었다. ㉣ 晚唐詩風은 六朝의으로 되돌아 갔다. 여기서 다시 六朝의 詩風의 특색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는 西晉 때의 文人, 陸機 潘嶽, 左思 등이 글을 아름답게 修飾함에 힘쓰고, 詩句에 對偶를 求하는 風을 일으켰다. 또, 南朝의 많은 文人들이 詩語의 韻律에 置重하게 되었다.”<sup>28)</sup>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作詩는 技巧에 치중했다고<sup>29)</sup> 할 수 있다. 個人마다 作風이 달라진다. 여기에 더하여 시대에 따라 서로 文風이 달라진다.

이상은 중국의 시풍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신라에서는 어떠했을까? 新羅初期부터 鄉歌라는 固有의 노래가 있었다. 향가의 작자는 僧侶가 많다. 왜냐하면 當時의 僧侶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다. 당시에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識者層은 血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당시의 승려는 少數의 엘리트에 속했다. 지금까지 왕이 된 사람을 빼고 유명한 人物을 뽑는다면 佛敎와 관계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당시의 불교가 民間佛敎였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漢文學, 특히 漢詩의 創作主體는 上流階層이었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는다. 특히 신라 하대에는 上流層 가운데서도 聖骨 眞骨이 아닌 六頭品들이 中心이 되었다. 육두품 가운데서도 崔致遠이 가장 명성을 날렸다.

삼국시대와 신라 중대의 시풍은 詩經體, 楚辭體, 五言詩體이다. 즉, 이 시기에 주로 읽은 文學관계 중국 서적이 <詩經>과 <文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신라 中代 신문왕 때에 설립한 國學에서의 교육 분야, 그리고 원성왕 때에 생긴 讀書三品科의 시험과목에서도 <文選>의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羅末의 三人의 傾向은 어떠했을까? 앞서 본장의 들머리에 필자는 羅末三人은 晚唐詩風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이 타당한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金周漢教授는 그의 논문 「崔孤雲文學觀의 淵源」에서 崔孤雲의 문학은 <文選> 특히 「文賦」와 <文心雕龍>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최치원만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까? 물론 최치원이 가장 명성

28) 文獻奎, 위의 책, p. 162.

29) 朝鮮時代의 成俔은 그의 著<慵齋叢話>에서 崔致遠을 評하기를 “我國文章始發揮於崔致遠雖能詩句意不精雖工四六而語不整”이라고 하고 있으며, 高麗時代의 李奎報는 <白雲小說>에서 역시 崔致遠을 評하기를 “其詩不甚高豈人中國在於晚唐故歟”라고 하고 있다.

을 날렸다. 최치원 때문에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 등의 이름이 가려졌다. 그러면 이제 當代 및 後代 사람들이 이들을 평한 것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박인범에 대한 평을 살펴 본다.

① 원외는 계수의 꽃다움을 거금었고, 오산(금오산)의 정기를 받아 천상의 금궤에 오름에 계수나무는 높은 그림자를 나누었고, 임금 곁의 粉黛에 감에 난 초가 남은 향기를 뿜는지라<sup>30)</sup>... 下略...

② 특히 박인범, 김악 두 사람으로 하여금 쌍쌍이 봉리에 남고 대를 지어 용문에 뛰게 하며, 청금에 열을 지어 강장에 나아가게 하고..... 박인범은 애를 써서 시를 짓고, 김악은 사육을 이기고 예에 놀아가서, 악경을 얻어 공자의 당에 함께 올랐으니<sup>31)</sup>... 下略...

③ 우리 동방에서 시로써 중국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세 사람(崔致遠, 朴仁範, 朴寅亮)에서 비롯되었으니 문장이 나라를 빛낼 것이 이와 같다.<sup>32)</sup>

④ 우리 동인이 시로써 중국에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이 세 글자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 문장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sup>33)</sup>

⑤ 이규보, 김경기, 김구, 이세현, 박인범, 이극 부자의 시는 모두 중국에 유포되었다.<sup>34)</sup>

⑥ 박인범이 新羅末人으로 興之하니 足見其詩之高邁라<sup>35)</sup>

⑦ 「江行呈張峻秀才」: 秋江月夜乘舟獨去之景可掬而末句淚潛流蓋染晚唐麗萎之氣 「贈田校書」 「寄香巖山叢上人」 二首亦 寄人者詩中救涸鱗與臥溪邊凡人之兩面也<sup>36)</sup>

⑧ 혼자서만 즐기거나 변민하기보다는 나서서 많은 사람을 사귀는 성미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 깊은 관심을 지녔던 사실도 아울러 드러난다.<sup>37)</sup>

30) 「貝外芳含雞樹藥繁山來登天上之金牌桂分高影夫陟日邊之粉署蘭吐餘香」崔致遠, <桂苑筆耕>卷二十, 「新羅探使僕朴仁範貝外」

31) “特令朴仁範金湑兩人雙飛鳳里對羅龍門許列吉衿同趨絳帳不容醜虜有玷仙科... 朴仁範苦心爲詩金湑克已復禮獲鏡樂鏡共陟氏堂” 崔致遠, 앞의 책, 앞의 권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32) “我東之以詩鳴于中國自三君子始文章之華國有如是夫”, 李奎報, 「白雲小說」 <詩話叢林> (서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p. 14.

33) “吾東人之以詩鳴於中國自三君子始文章之足以華國如此” 徐居正, 徐四佳全集, (서울: 許晨社) (影印本), 1980. 5. p. 649.

34) 魚叔權, 「釋官雜記」 崔海鍾 <權城漢文學史>에서 p. 21에서 재인용.

35) 崔海鍾, 權城漢文學史(上) (油印本), p. 21.

36) 池浚模, 「新羅漢文學史」, (新羅伽倻文化研究) vol. 4. (嶺南大. 同研究所), 1972, p. 136.

3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서울: 신구문화사), p. 253.

박인범에 대한 몇 분의 평을 열거해 봤다. 그러면 최광유·최승우 두 분에 대한 평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최광유, 최승우에 대한 평은 많지 않다. 최근의 池浚模님과 조동일 교수의 견해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먼저 최광유에 대한 평을 보기로 한다.

㉑ 其爲詩也有艷麗而伴傷感之風各首詩語比他人精<sup>38)</sup>

㉒ 남은 작문이 모두 칠언율시라는 사실은 최광유가 특히 시인으로 알려졌으며, 평측과 운율을 가다듬어 시를 엮어가는 솜씨가 상당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한 마음으로 완성하면서 거기다 감상을 보태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아름다우면서도 한적한 경치를 묘사하는 데서 흥취를 얻었다.<sup>39)</sup>

이어서 최승우에 대한 평을 들어 보기로 한다.

㉓ 「贈薛雜端」, 此詩有重齷味蓋因其人職在御史臺矣. 「憶江西舊遊因寄知己」此詩比崔匡裕「憶江南李處士」之華微些有寒瘦氣味然其末句敢負明時之語有婉曲態<sup>40)</sup>

㉔ 그곳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지냈거나 나그네의 심정을 담은 것이며, 그 수법은 섬세하고 아름다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당나라 말기 시풍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고사를 많이 섞은 점에서는 박인범 쪽에 가깝다.<sup>41)</sup>

이상 세 사람에 대한 평을 장황하게 열거했다. ①과 ②는 當時의 평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인범이 시를 잘 지었다는 것이다. 남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칭찬이 지나치다 해도 칭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③④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여기서도 박인범의 시가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⑤에서도 박인범이 시에 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부터 풍격론이라 할 수 있다. 최해종님은 박인범의 시가 高邁하다하고, 그 예로 「九成宮懷古」를 들고 있다. 그러면 고매한 시는 어떤 것일까? 고매하다는 것은 高潔<sup>42)</sup>과 高邁<sup>43)</sup>가 합친 것이라 할

38) 池浚模, 앞의 논문, p. 136.

39) 조동일, 앞의 책, p. 252.

40) 池浚模, 위의 논문, p. 138.

41) 조동일, 위의 책, p. 256.

42) “空山寥寥無人采樵策杖獨往葛衣飄搖古木葉蛻森森枯條自有天籟如風過簾幽人結廬左簾右瓢欲與語語往哉遙遙”, 司空圖, 袁枚, 詩品集解續詩品注, (台灣: 河洛圖書出版社), 1974, p. 85.

43) “驪驅騁步驚馬不前鷹隼脫羈凡鳥莫先壯士遲暮氣凌幽燕高冠切雲長劍倚天沒石飲

수 있다.

⑦에서 지준모님은 박인범의 시는 ‘晚唐의 脆萎之氣’가 있다고 했다. 또 최광유의 시에 대해서는 艷麗하다고 했다. 그리고 ⑩에서는 최승우의 시에 대해서 언급했다. ⑫의 조동일교수는 세 시인의 성격과 시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풍격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立身의 길

李家源교수는 申緯가 최치원과 박인범을 평한 시,

눈 크게 떠 中國의 문물을 모두 보아<sup>44)</sup>  
 開山の 시조로 공이 높다.  
 顧雲이 ‘一部方輿地輿’한 시귀와  
 僧基自日閑의 시귀와 어떠한지

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六朝以後의 交隣, 事大의 文章에는 오로지 駢麗를 숭상<sup>45)</sup>하는 동시에 「文選」으로써 科試에 必須的인 課本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이다…中略…

둘째는 韓國의 文教는 中國에 비하여 몇 世紀 동안이나 뒤떨어졌던 까닭이다.

위의 이유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첫 번째 예문이다. 물론 두 번째도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 첫 번째 예에 대한 근거는 앞 장에서 거론했다. 즉, 최승우의 작품에 그 예가 있다. 최승우의 「讀姚卿雲傳」에 인용된 宋玉의 「高唐賦」와 「好色賦」, 역시 「代甄萱寄高麗王書」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 「鄴下和李秀才與鏡」에서는 “한남의 제자 낙천의 신녀(韓南才子洛川神)”라는 구절이 있다. 또 한가지는 陸機형제에 대한 선망이다. 陸機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文賦」이다. 즉, 박인범의 「上馮員外」라는 詩에서 그 예가 있다. “육가 사부가 못영재를 가리는데, 헛되이 전하는 방 위의 이름

羽射虎藍田視彼程蔡未知孰賢,” 司空圖 袁枚, 앞의 책, p. 86.

44) “放眼威儀睹漢官 功高初祖始開山 顧雲一部方輿志 爭及僧基自日閑” 申緯, 警修堂集(第九冊) 「東人論詩絕句」三五首.

45)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서울: 民衆書館) 1973. 9. p. 72.

우습다. (陸家詞賦掩群英, 却嘆虛傳榜上名)”라는 짓구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四書三經의 영향이다. 먼저 四書 가운데 論語에 대한 인용이 한 군데 있다. 즉, 최광유의 「長安春日有感」이라는 시에 “여윈 말 타고 관하에 나무묻기도 지쳤네 (羸馬關河倦閭津)”이라는 말이 나온다. 四書에 대한 다른 인용은 없다.

三經에 대한 인용은 몇 곳에 보인다. 즉, 최광유의 「郊居呈知己」에 “중채처럼 商나라에 고를 짓고(生成仲虺裁商誥)가 그것이다. 최승우의 「贈薛雜端」에는 “가라기가 높은 하늘에 점점 올라 가더니(鴻飛碧落曾猶漸)”이라는 말이 있다.

또, 春秋의 인용도 보인다. 최승우의 「春日送韋大違自西川除淮南」이라는 시에 “바람 앞에 거꾸로 나는 익새를 생각해 주오(應念風前退飛鷁)”가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文選이나 陸機에 대한 인용 내지 선망은 당시의 추세이다. 또 春秋나 四書三經도 마찬가지이다. 즉, 신라시대에는 科試의 과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上品은 〈春秋左氏傳〉, 〈禮記〉, 〈文選〉, 〈論語〉, 〈孝經〉을, 中品은 〈曲禮〉, 〈論語〉, 〈孝經〉을, 下品은 〈曲禮〉와 〈孝經〉을 읽은 사람이었다. 만약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에 통달한 사람은 超擢<sup>46)</sup>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의 〈春秋〉, 〈論語〉, 그리고 〈書經〉, 〈周易〉 등에서의 인용은 당연하다.

이상은 직전적인 현실 문제에 해당한다. 조동일 교수가 말한 과거를 위한 학문이었다. 그러면 羅末의 세 시인들은 과거만을 의했는가? 다음 절에서 한 번 고찰해 보기로 한다.

#### · 無常에서 空으로

앞 장에서, 박인범의 「濱州龍朔寺閣兼東雲栖上人」이라는 시를 논하면서 반야사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인범의 위의 시는 반야사상, ‘空’사상이 잠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空사상이 처음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의 시 가운데 無常感을 지니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 즉 최광유의 「鸞鷲」, 「商山路作」, 박인범의 「江行呈張浚秀才」, 「馬嵬懷古」, 「九成宮懷古」 등과 최승우 「獻新除中書李舍人」,

46) “四年春始定讀書三品以出身讀書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兼明論語孝經者爲上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讀曲禮孝經者爲下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者超擢用之” 金富軾, 〈三國史記〉(卷第十)(新羅本記第十), 「元聖王條」.

「別」, 「鄴下和李秀才與鏡」 등에서 無常感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무상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최광유, 최승우의 시에서는 目標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온다. 즉, 최광유, 「長安春日有感」에 나오는 “여윈 말타고 관하에 나무묻기도 지쳤다. 형설의 뜻 아직 못 이뤘으니 버들에 꾀꼬리 소리 울어도 마음 몹시 상하네. (羸馬關河倦問津, 祇爲未酬螢雪志, 綠楊鶯語大傷神)”이나, 「送鄉人及弟還國」의 “계수뭇 짙은 향기 흰옷에 풍기면서, 한가득 돌아 가는 길은 하늘가를 가리키네…함께 고국 떠났다가 그대 먼저 돌아가니, 빈 편지나 한장 우리 집에 전해 주소 (仙桂濃香惹雪麻, 一條歸路指天涯…同離故國君先去 獨把空書寄遠家)” 등과 같은 일련의 시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최승우의 「春日送韋大尉自西川除淮南」의 “바람 앞에 거꾸로 나는 익새를 생각해 주오, 어찌해야 닭무리에서 학처럼 뛰어날꼬 (應念風前退飛鶴, 不知何路出鷄群)” 나 「憶江西舊遊因寄知己」의 “흰 막걸리 붉은 회가 꿈에도 그리워, 그대 다시 부러워라, 좋은 시절 어이 저버릴꼬 (自醪紅醴雖牽夢, 敢負明時更羨君)” 등에서 알 수 있다. 비단 위의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박인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인범이 無常을 느낀 것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앞에서 든 세 수의 시가 대표적이다. 박인범은 앞의 「馬嵬懷古」, 「九成宮懷古」 등에서 최광유, 최승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상감을 맛보았다. 즉,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무상감이다. 삼라만상이 흥망성쇠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있지 않다.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것이다. 「유마경」 제8장 ‘불이(不二)의 法門에 들어감’<sup>47)</sup>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반야경의 中心사상이 바로 ‘空’인 것이다. ‘空’ 가운데는 色도 없고 受와 想과 行과 識도 없고, 眼과 身과 鼻와<sup>48)</sup> 舌과 耳와 意도 없고, 色과 聲과 香과 味와 觸과 法도 없고, 眼界도 없고 乃至 意識界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주의적 주관으로 그릇되게 인식, 분별하기 때문에 본래의 法이 그대로 남아 있지 못하고 가지각색의 추잡한 물을 보이게 된 것이다. 元曉<sup>49)</sup>의 말대로 인간 본래의 智慧는 ‘照寂慧’ 즉, 평화롭게 비치는 지혜인데 그 평화를 거역하는 생각이 나타날 때

47) 權山雄 · 著, 李箕永 譯, 空의 世界, (東國大學校佛典刊行委員會) (現代佛教新書, 22), 1983, 5, pp. 183~186.

48) “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 李吉澤 說法, 解說, 般若心經, (서울: 普成文化社), 1986, 10, pp. 64~89.

49) 李箕永 著의 <元曉思想>(世界觀), p. 215.

번뇌라 한다. 이러한 번뇌가 없는 세계를 박인범은 그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최광유, 최승우의 개인적인 무상에서 박인범은 쏘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최승우는 개인적인 官職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詩에서 그러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다음에는 이들의 시의 경향에 대해서 더 깊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 陰柔의 美

앞장에서 언급한 최승우의 「讀姚卿雲傳」에서는 인간과 초월자와의 만남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을 지닌 시를 찾아보기로 한다. 역시 최승우의 「鄴下和李秀才與鏡」이라는 시에 “한남의 재자, 낙천의 신녀 서로 맞는 이 그 몇인고? (漢南才子洛川神, 每算相稱有幾人)”이라는 시구가 있다. 여기서 漢南의 才子는 바로 曹植을 가리킨다. 그리고 洛川의 神은 바로 북비(宓妃)라는 女神이다. 魏나라의 조식이 낙수를 건너면서 미인 甄氏를 사념하여 洛神賦를 지었다. 또 최승우의 「送曹進士松入羅浮」라는 시에 보면 “칠 십 긴 시내, 새 동천 안이, 이 다음에 당연히 이름 이루리. (七十長溪三洞裏, 他年名遂也相宜)”라는 말이 있다. 나부산이 깊고 험하여 그 안에 시내가 칠십 군데 있고, 洞天이 세 군데가 있다. 洞天이라는 것은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십육 동천, 삼십육 小洞天과 같은 類이다.

박인범의 「上馮員外」라는 시에 “연화막 등림에 받아들여지길 기다리는 몸, 포릇포릇 궁한 새만 제 시름겨워 우네.(蓮幕鄧林客待物, 翩翩窮鳥自哀鳴)”이라는 시구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鄧林이라는 시어 속에는 고사가 숨어 있다.<sup>50)</sup> 또 박인범의 「贈田校書」라는 시에는 “가없다 괴로운 수 자리에 이룬 것 없는 이 신세, 남은 물결로 확고기 구하소서. (應憐苦戍成何事, 許借餘波救涸鱗)”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속에는 涸轍이라는 고사가 숨어 있다. 또 최광유의 「御溝」라는 시에 “누가 만일 저 하늘 은하수에 오는 생각이 있다면, 떼 타고 이리 통하면 될 것을.(人若有心上星漢, 乘槎未必此難通)”이라는 말이 있다. 즉 한나라의 張騫이 떼를 타고 은하에 갔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 시인은 초인문정신을 담고 있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인문정신과 초인문정신 사이를 넘나들었다. 이들은 현실세계에 대해서는 참여의식이 있었다. 즉, 현실적인 영달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까지 유학을 했다. 한편 漢, 魏, 晉, 六朝, 隋唐시대<sup>50)</sup>도 性과 玄思, 玄理를 꾀

50) 앞의註 26 참조.



관화하여 하나의 관조의 대상으로 삼았다. 羅末 詩人들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羅末의 세 시인은 모두 唐에 유학했다. 그리고 唐에 오래 살았다. 따라서 이들이 인문정신과 초인문정신 세계를 共有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즉,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최광유, 박인범, 최승우도 유가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가·불가의 습합이라 할 수 있다.

앞의 III장에서 필자는 羅末의 세 시인의 시는 氣가 그리 높지 않다고 했다. 宋나라의 嚴羽는 唐詩와 宋詩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唐人과 本朝(宋)人の 시는 그 工拙을 따질 것도 없이 그 기상부터가 다르다”<sup>52)</sup>고 했다. 즉 唐詩는 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곧 바로 드러냄이 많기 때문이다.

羅末의 세 시인도 情을 주로한 시를 지었다. 氣를 위주로 한 宋詩風이 아니다. 이들은 李白을 中心으로 하는 浪漫派의 詩人群<sup>53)</sup>에 속하지 않는다. 즉, 情熱, 興奮, 向天飛行, 끊임없는 놀라움, 소생하는 新奇함이 이들의 시 속에는 없다. 古典派인 杜甫系統의 詩人群에 해당된다. 즉, 默想, 沈着, 憂愁, 思索을 하는 것이 시 속에 들어 있다. 즉, 호레이스처럼 ‘思索과 근심과 自制의 使徒’이다. 風格面에서 陰柔美인 沈著, 淸奇, 飄逸, 綺麗, 纖穠한 쪽이다.<sup>54)</sup>

羅末 세 시인의 詩風은 순전히 晚唐風만은 아니다. 이는 그들이 新羅에 있을 때 익힌 여러 書籍의 영향인 것 같다. 여러 책 가운데서도 특히 <文選>의 영향이 큰 것이다. 최승우가 가장 晚唐風에 가깝다. 의도적으로 措辭를 한 흔적이 많다. 반면 박인범의 시는 그다지 의도적으로 수식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자연스런 정감의 발로인 것 같다. 최해중 교수가 박인범의 「涇州龍朔寺閣兼東雲栖上人」이라는 시를 ‘高邁’하다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 최승우의 獻贈詩는 대체로 繁縟하다. 박인범은 만당시의 영향도

51) 金周漢, 앞의 논문, pp. 285~286.

牟宗三, 才性和 玄理, (台灣: 4 學生書局), 1974.

52) “唐人與本朝人詩末論 工拙直是氣象不同”高棅, <唐詩品彙>(序論)

· “唐詩主情故多蘊藉 宋詩主氣 故多徑露”, 王士禛, <師友詩傳續錄>

53) 趙雲濟 “韓國古詩歌와 唐詩의 比較”(慕山沈載完博士 華甲紀念 時調論叢)(서울: 一潮閣), 1978. 3, pp. 170~171.

54) 朱東潤교수는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作品을 論한 것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陰柔之美에는 典雅, 沈著, 淸奇, 飄逸, 綺穠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陽剛之美에는 雄渾, 悲慨, 豪放, 勁健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羅末三詩人은 前者에 해당된다.

朱東潤, 中國文學批評史大綱, (台灣: 開明書局), 1950. p. 114.

받았으나 성당·중당시의 영향도 받았다. 최광유는 박인범과 최승우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관직에 나가기를 바랐다. 그 가운데서도 최승우가 가장 심한 것 같다. 따라서 최승우가 후백제의 견훤의 밑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마무리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羅末 세 시인의 詩語(Poetic Diction)는 공통적으로 섬세하다. 이미지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들은 自然美를 발견했다. 이 자연미의 발견은 중국에서도 魏晉時代까지 소급된다.

세 시인의 시에는 歸巢意志를 담고 있다. 그들은 모두 깊이 鄉愁에 젖어 있다. 이들의 향수는 단지 당나라에서 고국인 신라를 그리워 한 것만은 아니다. 形而下學的인 것이 아니다. 이들의 향수는 形而上學的인 것이다. 즉, 마음 속의 고향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 속의 고향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 無常感을 느낀다. 無常은 불교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불교도에서 그런 무상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이들은 儒學精神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당나라로 유학한 것으로 증명된다. 이들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응시했다. 또 고국의 부모님을 걱정했다. 또 현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儒學精神과 기타 다른 사상이 융합되었다. 박인범은 무상에서 空사상으로 승화하기도 했다. 「涇州龍朔寺閣兼柬雲栖上人」에서 드러난다.

나말 세 시인들은 情感的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詠物詩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나타난다. 즉, 三國時代의 主氣詩가 아니라 신라 중기의 主情詩의 경향을 계승하고 있다. 세 시인들은 자연과 交感하기도 했다. 그러나 超越者나 內在者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월자와 내재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의 交感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최광유의 「御溝」, 「細雨」, 「庭梅」, 최승우의 「鏡湖」 등을 들 수 있다.

나말 세 시인들의 시는 超人文精神을 담고 있기도 하다. 박인범의 「涇州龍朔寺」詩는 불교의 般若思想을 담고 있다. 최승우의 「讀姚卿雲傳」과 같은 것도 초인문정신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들이 才性和 玄思, 玄理를

객관화하여 하나의 관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완전히 초인문적인 것이 아니다. 인문정신과 초인문정신이 융합된 상태이다.

나말의 세 시인의 시는 氣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이들의 시가 唐詩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이들은 唐詩에서 浪漫派인 李伯系統이 아니다. 즉 靈感, 情勢, 興奮, 向天飛行, 끊임없는 놀라움, 소생하는 新奇함이 이들의 시 속에는 없다. 이들은 古典派인 杜甫系列에 해당된다. 즉, 默想, 沈着하다. 호레이스처럼 思索과 근심과 自制의 使徒이다. 이들 시의 風格은 陰柔之美에 속한다.

나말 세 시인들은 <文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四書三經과 같은 經書나 <史記>, <三國志>, <春秋>와 같은 史書, 그리고 <般若心經>, <華嚴經>과 같은 佛家書, <老子>, <莊子>와 같은 道家書의 영향도 받았다. 이는 이들의 학문영역을 말해준다.

나말 세 시인들은 고국인 신라와 이국인 당나라에서 학문을 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익힌 여러 서적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순전히 만당풍을 답습한 것은 아니다.

박인범의 시가 가장 뛰어났다. 박인범의 시는 晚唐詩風도 있고, 또 盛唐·中唐詩風도 있다. 최광유는 박인범과 최승우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최승우는 出世에 애착이 강했다. 최광유, 박인범의 시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최승우의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최승우가 後百濟 견훤의 휘하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다.

나말의 세 시인들은 최치원과 더불어 近體詩를 한반도에 도입한 사람들이다. 뿐만아니라 후대 文人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상세한 영향 관계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미진하나마 여기서 이 논문을 끝맺기로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다.